

한여름 밤 즐기는 클래식 축제

26~29일 천주교 세계평화의전당서 '제7회 전주 비바체실내악축제' 개최

전주시는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제7회 전주 비바체실내악축제' (조직위원장 조화림)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천주교 세계평화의전당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전주 비바체실내악축제는 현대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예술도시 전주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전주 시민들이 정통 클래식 음악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다.

올해 축제에서는 최은식 예술감독

을 중심으로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들이 참여했다. 첫날인 26일에는 모차르트와 브람스, 멘델스존의 선율이 울려 퍼지고, 27일부터 29일까지는 각각 △젊음의 열정 △프 다른 스타일 △동유럽의 목소리를 주제로 우리 귀에 익숙한 클래식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어 오는 10월 6일~7일 진행되는 가을 축제에서는 첼로 이강호, 소프라노 김순영, 테너 김동원이 협연을 선보인다.

특히, 오는 10월 7일 야외에서 펼

쳐지는 가곡음악회는 이번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자리로, 다채로운 공연과 더불어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영숙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인 전주의 한여름 밤을 수놓을 클래식 축제"라며 "한국의 전통과 서양의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공연을 많은 시민이 즐기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욱기기자



전주시가 6.25 한국전쟁 당시 나라를 수호하다 전사한 유공자의 넋을 기리고,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21일 전주시장실에서 6.25 전쟁 중 전사한故 김노성 중사와故 전운권 일병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도 수여했다.

6·25 참전유공자 유가족에 화랑무공훈장 전수

우범기 전주시장,故 김노성 중사·故 전운권 일병 유족에 전달

전주시가 6.25 한국전쟁 당시 나라를 수호하다 전사한 유공자의 넋을 기리고,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21일 전주시장실에서 6.25 전쟁 중 전사한故 김노성 중사와故 전운권 일병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6·25 한국전쟁 유공자인故 김노성 중사의 재차인 김운수 씨와故 전운권 일병의 자녀 전병규 씨에게 각각 화랑무공훈장과 증서를 전달했다. 또한 이날 전수식에 오영수 무공수훈자 전북도지부장과 윤환 무공수훈자 전주시지회장도 참석해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함께 기렸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의 희생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예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지난 2019년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를 통해 6·25 전쟁 당시 전공으로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전장 상황으로 인해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수훈대상자와 유가족에게 훈장과 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화랑 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해 용감하게 헌신·분투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전과를 올린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훈장이다.

유공자 유족들은 이날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욱기기자

지역대학 협력 전주 시민 평생학습 역량 강화

전주시평생학습관, 전주기전대·전주비전대 등 대학 연계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전개

전주시가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 등 지역대학과 협력해 전주 시민에게 양질의 평생학습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평생학습관(관장 권인숙)은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대학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평생학습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2023 지역대학 연계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에서는 지역대학들이 참여해 △교수진과 학생들이 함께 운영하는 학습상담부스 △직업교육 스카리어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등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전주비전대학교는 급변하는 기술변화로 인한 전문인력 증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총 2회에 걸쳐 AI융합교육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여한 시민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고,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가자들은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는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어 경력 개발과 취업 기회를 더욱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권인숙 전주시평생학습관장은 "지역대학 연계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대학이 평생교육의 거점으로서 시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평생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인 기여도 동시에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시평생학습관은 앞으로도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전주 시민들의 평생학습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다양

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김욱기기자

전주시 덕진구, 장마철 호우 피해 대책 위한 점검회의 개최

피해 상황 파악·사전 대비 위한 방안 등 논의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는 지난 21일 덕진구청 3층 상황실에서 26명의 과·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마철 호우 피해 대책을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7~8월 유례없이 긴 장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번 호우로 인한 피해를 파악하고 이후 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대비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한 사전 대비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지난 14일~18일까지 5일간 지속된 호우로 발생한 피해 지역 파악 및 후속 조치 사항 등을 공유했다.

또한, 추후 계속된 장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동 주민센터 관할 주요 취약지 정비 △관내 하천·공원 녹지 정비 △토사유출 구간, 도로·시설물 정비 △호우로 인해 자연철저 등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며 일제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덕진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말 것을 지시했다.

이율러, 구는 시민들에게 장마철 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차량 침수 시 △하천 급류 시 △강풍·낙뢰 발생 시 등 장마철 대표적인 호우 행동요령을 미리 알아두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자연재난은 준비한 만큼 예방효과가 나기 때문에 재난 대응 전 기관에서는 이번 장마철 호우에도 지나치다 살을 만큼 민감하게 총력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도 행동요령을 잘 숙지해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장마철 호우 대응과 관련하여는 매뉴얼에 따른 충실한 대응과 과·동장 중심의 철저한 상황관리를 당부했으며, 특히 장마 기간 기상 특보가 발령되면 즉시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전 직원들이 긴장을 늦추지

/김욱기기자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이웃 일상 회복 함께해 주세요"

전주시복지재단, 8월 16일까지 피해 지원 특별모금 진행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업(이사장 윤방섭)이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한 특별모금에 나섰다.

8월 16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을 진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모인 기부금은 집중호우 피해를 겪은 전주지역 저소득 가구에 생필품과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일상 회복을 돕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특별모금 후원계좌는 전북은행 505-23-0319466(전북공동모금회)이며, 모금 관련 사항은 전주시복지재단 모금팀

(063-281-00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면서 "기부해 주신 성금은 비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구에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역의 경우 선제적 대응을 통해 다른 지역보다는 비 피해가 적었지만, 지난 14일 하루만에 24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리는 등 13일부터 17일까지 358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농경지 및 도로



침수, 주택침수 등의 비 피해가 발생했다.

/김욱기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